

개성화 과정에서의 지옥하강의 의미: 김덕규의 논문 <신곡의 지옥편에 나타난 그림자와 악>에 대한 논문평

여 춘 자*

700년 전에 쓰여진 《신곡》은 단테가 시대의 변화와 자신의 삶의 경험을 관통하며 집필하였기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읽을 때 더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 것 같다. 《신곡》의 지옥의 문 입구에는 “이곳에 들어온 자여, 모든 희망을 버려라.”라는 글귀가 적혀있다고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세계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지옥의 세계나 다름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리라.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고통스러운 인간의 절망 상태를 의미할 것이다.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옥과 같은 현실의 고통과 나 자신의 고통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이 고통을 살아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주어진다. 근대에 새로운 인간의 출현을 볼 수 있는 인문주의의 문턱에서 단테는 루시퍼(Lucifer)의 야만적 세력의 도구, 즉 인간 정신의 재앙적 영향에 대해 예감했던 것 같다. 단테가 보았던 것은 그의 시대와 개별적 인격을 초월하며, 인류 전체에 관한 원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단테는 지옥의 가장 숨겨진 후미진 곳에서부터 신과의 최종적 융합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준에서 살아있는 신을 경험한 것 같다.

김덕규는 논문 <신곡의 지옥편에 나타난 그림자와 악>에서 《신곡》의 지옥편에 등장하는 세 짐승, 즉 인간의 욕망을 통한 그림자와 악의 현상화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의미를 현 시대상과 잘 연결시켜, 독자로서 외부의 지옥뿐만 아니라 내 안의 지옥을 인식하고 바라보도록 촉구하는 내향화의 안내자 역할

*다미안 꿈모래놀이 연구소

Address for correspondence: Chun Ja Yeo, Damian Dream Sandplay Institute, Hyeong-Je Bldg. #501, 73 Dapsimni-ro 63-gil, Dongdaemun-gu, Seoul 02525, Korea

Tel:*** - **** - **** E-mail: srycotheresa@gmail.com

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믿음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표어의 강렬함과 공포감으로 선뜻 지옥에 대한 언급을 꺼리게 되는데, 단테는 지옥도 탐험할만한 곳이라는 희망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는 듯하다. 김덕규의 논문을 통해 ‘개성화 과정에서의 지옥하강의 의미’에 대해 다시 숙고해보는 계기가 되어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고대 이래로 입문식(initiation)은 과거에도 거의 할 수 없었던 훈련의 수준들을 요구하면서 항상 인간의 자발적인 무의식의 과정들의 의식적 경험이 되어 왔다. 입문식 과정들과 분석은 개성화 과정을 촉진한다.¹⁾ 우리는 집단 의식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 인간 공동체의 경계선 너머에서 성장함으로써 기존의 공동체 혹은 사회를 넘어서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입문식에서 본질적인 부분이다. 죽음의 밤이 지나면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새벽이 오고, 생명은 심연 속의 어둠, 곧 지하세계로부터 나온다는 관념은 신화의 중요한 모티프이고, 이런 모티프를 ‘저승 또는 지하세계 여행’, ‘밤바다 여행(night sea journey)’이라고 한다. 이는 죽음, 지하세계로의 하강, 그 뒤의 재탄생의 주기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하세계 여행은 입문식에서 모든 입문자가 거쳐야 할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즉 입문자의 상징적인 죽음과 부활이다. 엘리야데에 의하면, 새로 샤먼으로 축성될 후보자는 저승여행 동안 하늘이나 지하세계의 최고 신, 죽은 조상들 또는 지나간 과거의 위대한 샤먼, 주술적인 여성 인물 또는 마술적인 동물로부터 여러 가지를 배운다. 샤먼과 원시적 메디신맨의 입문식에서의 저승여행은 후대의 고등문화에서는 혼의 천상여행의 모티프로 나타난다.²⁾ 우리의 자기실현과 개성화 과정은 지옥이라는 가장 낮은 지점에서, 즉 가난과 낮아짐과 박탈과 상징적 죽음을 가장 극한적으로 경험하는 지점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의 자기실현이 고난과 고통의 기나긴 체험을 통해 형성된 열등성과 주변인적인 정체성으로부터 핵심 동력을 얻기 때문이다.

신이나 영웅이 지하세계에 내려가서 죽은 사람을 건져내어 이 세상으로 데려오는 이야기는 고전적 신화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신화 속의 인물들은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지하세계를 찾아간다.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

1) Jung CG, Jaffe A(ed) (1989): *Memories, Dreams, Reflections*, Vintage Books, New York, p342.

2) Von Franz ML, 이부영(역) (2016): 《C.G. 융 우리 시대 그의 신화》, 한국융연구원, 서울, pp109-114.

에 등장하는 영웅 아이네이아스는 자신의 아버지를 찾기 위해, 오르페우스는 자신의 연인 에우리디케를 소생시키기 위해, 이자나기는 자신의 아내 이자나미를 되찾기 위해, 오디세우스는 예언자 테이레시아스로부터 조언을 구하기 위해, 헤라클레스는 케르베로스를 납치하고 테세우스를 풀어주기 위해 지하세계로 간다. 페르세포네는 지하세계로 납치된다. 가장 최초의 영웅 신화라고 할 수 있는 수메르의 길가메시 신화에서 길가메시는 친구 엔키두의 죽음을 지켜 보면서 인간이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그리하여 죽음을 면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불사약을 구하러 지하세계로 떠난다. 천신만고 끝에 길가메시는 천상의 빛, 영원함을 상징하는 불로초를 손에 넣는다.³⁾ 이러한 신화들은 인격의 변환과정은 험난한 과정이지만, 그 길이 고통과 죽음의 길일지라도 이를 극복하고서 빛의 자손으로 재생하기를 웅변하고 있는 것 같다.

외경에 의하면, 성금요일과 부활절 일요일에 그리스도는 지옥으로 내려가 고대의 가치 있는 자들을 건져낸다. 다시 말해서, 소위 지옥을 약탈한다. 이 이야기는 외경인 니고데모 복음서의 경외서(5세기 경)에 처음으로 나오는데 다음과 같다.

황동으로 된 문이 산산 조각나고 죽은 자들을 묶고 있던 사슬이 느슨해졌으며, 영광의 왕이 들어왔다. 사탄을 쇠사슬로 묶은 다음 그리스도는 아담의 이마에 성호를 그으며 축복했고, 모든 애국자들과 예언자들과 순교자들과 선조들에게도 똑같은 축복을 내렸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지옥에서 뛰쳐나왔다.⁴⁾

이 모티프는 중세극이나 문학에서 자주 등장했고 대중의 인기를 끌었으며, 특히 그리스도의 수난사건 중의 하나로 취급되었다. 이 현상은 르네상스기 내내 지속되었고, 드물게는 16세기 이후에도 발견되었다.⁵⁾

융에 의하면, 인간 안에 있는 신의 형상은 타락에 의해 파괴된 것이 아니라 손상되고 부패한, 즉 왜곡된 것이기 때문에 신의 은총을 통해 회복될 수 있는 것이며, 그 융합의 범위는 그리스도의 영혼이 지옥에 내려갔다는 것에서 암시

3) 김난주 (2007): 《융 심리학의 관점으로 본 한국의 신화》, 집문당, 서울, p83.

4) Edinger EF (1985): *The Christian Archetype*, Inner City Books, Toronto, p110.

5) Hall J (1974): *Dictionary of Subjects and Symbols in Art*, Harper and Row, New York, p100.

되고 있고, 그리스도의 구원 작업은 죽은 자의 구원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심리학적으로 이는 개성화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인 집단적 무의식을 융합하는 작업과 동등한 것이다.⁶⁾ 그리고 입문식에는 항상 더 큰 전체성을 위한 무의식으로의 하강이 있다.⁷⁾ 인간이 ‘영원에 대한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집단적 무의식의 초시간적인 특성 때문이다.⁸⁾ 그리고 죽어서 지옥에 가 있는 3일 동안은 사라진 가치가 무의식으로 내려가는 것을 의미하며, 죽은 영혼은 지옥에서 어둠의 세력을 정복함으로써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고 하늘로 다시 올라간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가장 명료한 의식 획득과 자아가 자기 원형으로 변환되는 개성화를 의미한다.⁹⁾

에드워드 에딘저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에딘저에 의하면, 영웅적인 자아는 무의식과 직면하고 새로워지며, 그리스도가 지옥으로 내려감으로써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같은 고대의 영웅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개성화 과정은 우리 자신들은 물론 우리 조상들도 구원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한 사람의 개성화는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⁰⁾ 자아가 의도적으로 무의식 특히 집단적 무의식으로 내려갈 때, “자아의 빛은 의식 세계에 일시적으로 소멸되고 무의식 세계로 옮겨지고, 그곳에서 구제할 가치가 있는 무의식적 내용들을 구출하고 심지어 죽음 자체를 정복하는 것이며, 이는 무의식이 자아를 영원한 것으로 만드는 것, 자아를 무한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이럴 때 자아는 상대화되어 초월적 권위를 인정하고 자신을 더 큰 존재에 종속시킨다.”¹¹⁾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옥하강은 부활, 재탄생과 직결되며, 이는 이시스가 오시리스의 해체된 신신을 재구성하는 이야기에 상응한다고 할 수 있다. 오시리스 신화에서는 기름을 바르는 것으로 완성된다. 이러한 이집트식 방부처리 과정을 통해 죽은 자는 영원불멸의 몸으로 변환된다. 그리고 이 과정은 사십일

6) Jung CG (1950): CW 9ii, *Aion*,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par.72.

7) Jung CG (1935): CW 18, *The Symbolic Life*,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par.270.

8) Eliade M, 강응섭 역 (2006): 《신화·꿈·신비》, 숲, 고양, p147.

9) Jung CG (1969): CW 11, *Psychology and Religion*,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par.149.

10) Jaffe LW, 심상영 역 (2006): 《마음을 해방하기》, 한국심층심리연구소, 서울, pp120-121.

11) Edinger EF (1985): *The Christian Archetype*, Inner City Books, Toronto, p112.

이 걸린다. “시의들이 이스라엘의 몸을 방부처리 하였다. 이 일을 처리하는 데에 사십 일이 걸렸다. 방부처리를 하는 데에는 그만큼 시일이 걸리는 것이다.” (창세 50,3) 사십일은 연금술 작업에 필요한 숫자이며,¹²⁾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사이의 시간과도 일치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오시리스의 죽음과 재탄생은 개성화 과정에 포함된 죽음과 재탄생에 해당한다.

이 원형적 사건은 외적으로는 식물의 혼이 겨울에 죽었다가 봄에 소생하는 것에서 반영되고 있다. 융에 의하면, 불완전한 변환의 상태 즉 단순히 희망하거나 기다리고 있는 상태는 고통의 측면만이 아니라 비록 숨겨져 있지만 긍정적인 행복의 측면도 있다. 이것은 심리적 변환의 미로에서 방황하는 한 사람이 자신의 외형적 외로움과 화해시켜주는 비밀스런 행복함과 만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이때 그는 자신과 대화함으로써 지독한 지루함이나 슬픔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동반자, 그보다 더한 비밀스런 사랑의 행복 혹은 매마른 땅에서 새싹이 움트고 수확을 약속하는 숨겨진 봄과 같은 것을 발견한다. 이것이 연금술이 말하는 ‘축복받은 녹색’이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금속의 녹을 가리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것 안에 비밀스럽게 내재해 있는 신성한 혼을 가리킨다.¹³⁾ 영지주의 문헌에서는 완벽한 사람 혹은 안트로포스(Anthropos)를 시체(corpse)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는 그가 마치 “미라가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이 자신의 몸속에 매장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파라켈수스(Paracelsus)도 “진실로 삶은 죽음의 벌레로부터 죽은 몸을 보존하기 위해 방부 처리한 미라 같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¹⁴⁾라고 말한다. 죽음으로 철학자의 아이(Filius philosophorum), 즉 철학자의 돌(Lapis philosophorum)이 탄생하며 죽음, 즉 가치 없는 잔류물이 가장 가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스러운 변환 과정은 인간의 이해 안에서 별, 고문, 죽음, 변환으로 드러난다.¹⁵⁾

융은 집단적 무의식과 직면하는 동안 죽은 자들이 방문하거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내는 꿈을 꾸었다. 이러한 경험에 대해 융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 순간부터 응답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것들의 목소리가

12) Jung CG (1968): CW 14, *Mysterium Coniunctionis*,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par.77.

13) Jung CG (1968): Ibid., par.623.

14) Jung CG (1951): CW 9ii, *Aion*,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par.334.

15) Jung CG (1954): CW 13, *Alchemical Studies*,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par.139.

내게 더욱 분명해졌다. ... 이러한 죽은 자들과의 대화는 무의식에 관해 내가 세상과 의사소통해야만 했던 것의 일종의 전조였다. ... 내가 내 자신에게만 속하는 것을 중단하였고, 그런 권리를 포기한 것은 바로 그때였다. 그 때부터 나의 삶은 모든 사람들에게 속한 것이 되었다.¹⁶⁾

모든 사람들에게 속한 삶을 산다는 것은 무한과 연결된 삶을 말한다. 자아는 상대화되고, 초월적 권위를 인정하고 자신을 더 큰 존재에 종속시킨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정신 안에 살고 있는 하나의 원형이다. 역사 안에는 집단적인 신의 이미지가 죽음과 재탄생을 거치는 특정한 시기가 있는 것 같다. 지금이 바로 그 시기가 아닌가 한다. 우리 각자는 고통의 의미를 깨닫는 새로운 통찰력과 지혜를 얻고 결과들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새로운 시대에 놓여 있다. 융은 “악의 실체와 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살아있는 모든 것을 갈라놓고 정지시킨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의 삶이 그러했듯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우리는 진정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같은 도덕적 고통에 매달려야 한다.”¹⁷⁾고 말한다. 단테는 자기실현과 개성화를 위한 내향화의 길에 지름길이 없으며, 모든 개인이 진심으로 삶의 태도 변화를 원한다면, 자신의 지옥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희망을 갖기를 바라는 것 같다.

단테는 누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책을 《Divine Comedy》라고 한 특별한 의미를 “희극(comedy)은 비참함에서 시작하지만 행복으로 열매를 맺는 글”이라고 하며 “나는 슬픈 시작에서 행복한 결말로 이루어진 글을 쓰겠다. 그래서 책 제목을 희극이라고 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지옥은 늘 우리 곁에 있을 것이다. 지옥을 산다는 것은 지옥문 입구에 쓰여진 “이곳에 들어온 자여, 모든 희망을 버려라”라는 글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나 자신과 세상에 대한 희망을 품고 고통에 계속 부딪혀 나가며 고통의 의미를 살아가는 것이리라. 그것이 지옥을 지옥이 아니게 만드는 방법일 것이다. 지옥의 어두운 숲에서부터 단테의 여정을 이끈 별, 지옥에서 만난 단테의 스승 부르네토 라티니(Brunetto latini)의 조언대로 “너의 별을 따라가거라. 그러면 너의 천국에 닿을 것이다.”(지옥

16) Jung CG, Jaffe A(ed) (1989): *Memories, Dreams, Reflections*, Vintage Books, New York, p191f.

17) Jung CG (1944): CW 12, *Psychology and Alchemy*,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par.24.

편, 15곡, 55-57) 오직 믿음만으로는 천국에 이를 수 없음을 의미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단테를 길동무 삼아 각자의 별을 따르는 순례자로서 각자의 개성화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